

# “반려동물 간식 만들어 경제적 자립 이끈다”

글 유인중 편집부 / 사진제공 동광임파워먼트센터



동광임파워먼트센터는 지난 5월 부천 송내역 인근에 반려동물 수제간식을 만드는 작업장을 오픈했다. 정신장애인들이 제품을 만드는 모습(왼쪽부터)

조현병이 있는 J(여·34)씨는 2018년 초부터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 자리한 동광임파워먼트센터(원장 김장배, 이하 센터)를 다니기 시작했다. 정신장애인은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 탓에 취업이 쉽지 않다. 센터는 부천동광교회가 운영하는 정신장애인 재활시설로 정신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다양한 고용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J씨는 센터를 찾게 됐다. J씨는 처음에 동물매개활동을 교육받고 일을 시작했다. 경계성 자폐아동 등을 치료도우미견(犬)을 활용해 돕는 일이었다. 이 일은 한 달에 두세 번밖에 할 수 없어서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기 어려웠다.

센터 또한 한계를 인식하고 반려동물 식품 제조사업인 ‘오도독 냥냥’을 구상했고, 이를 아산재단의 사회복지지원사업에 신청해 선정됐다. 아산재단의 지원에 힘입어 2018년 8월 사업을 시작한 센터의 첫째 목표는 반려동물 간식을 만들 환경 조성이었다. 센터 이용자 중에서 J씨를 포함한 20~30대 10명(남 4, 여 6명)을 참여자로 선정했고, 반려동물식품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센터의 프로그램실에서 교육을 시작했다. 한국반려동물아카데미와 연계해 사료학·영양학·위생학·반려동물학 개론 수업이 매주 2회씩 40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지난 4월 말 다른 곳에 취업한 2명을 제외한 8명 전원이 시험에 합격했다.

애초엔 수제간식 제조 작업장을 센터 내에 만들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간이 협소해서 부천동광교회로부터 보증금과 월세 지원을 받아 송내역 부근에 15평 규모의 작업장을 마련해 5월 13일 문을 열었다. 자격증을 딴 J씨와 또 다른 한 명은 이 작업장에 채용돼 일을 시작했다.

지난 7월 센터에는 아산재단의 2년차 지원에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고, 8월 29일에는 사업자등록까지 마쳤다. 올 1월부터 시제품을 만들면서 여러 레시피를 실험한 센터는 성분 분석을 완료하고 9월 말부터 ‘오도독 냥냥’이라는 이름의 펫푸드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센터의 조승리(31) 팀장은 “시중에는 중국 수입품이 많아서 반려동물이 배탈이 나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잦은데, 우리 제품은 방부제와 첨가물을 넣지 않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판매가 본격화되면 자격증을 취득한 교육생을 추가 고용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산재단은 매년 재단 사회복지 자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한 해 동안 탁월한 사업성과를 거둔 협력기관을 ‘협력사업 우수수행기관’으로 선정한다. 2018년에는 동광임파워먼트센터 등 5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센터는 2011년 1월 문을 열었으며, 만 15세 이상의 조현병·우울증 등을 지닌 정신장애인이 이용한다. 정원은 54명이고, 직원은 원장 포함 10명이다. 